

제17편 - 제3신앙촌시대(제4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63회)

제16편 제3신앙촌 시대(제3부)
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시키려 오신 하나님(구세주 출현)

제17편 제3신앙촌 시대(제4부)
一. 완성자 구세주 출현
二. 종교(宗敎)를 개종(改宗)함
三. 결혼을 금지시키고 부부를 갈라서게 함

제3신앙촌시대(제3부)
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시키려 오신 하나님(구세주 출현)

2)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시키려 오신 영모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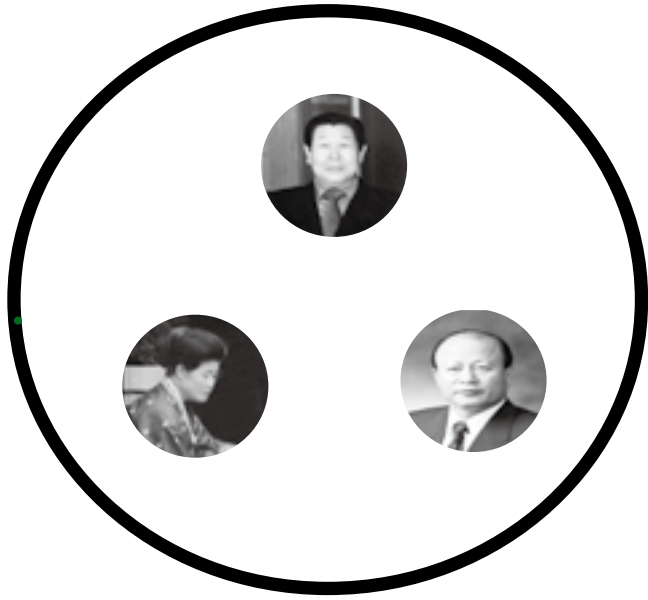
영모님은 마귀의 실체도 밝혀서 드러내셔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실체도 밝혀 드러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고 마귀라는 것을 밝혀야 하시는 데도 영모님은 그것을 안 하시고 때가 될 때까지 참아 오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마귀 속에 갇혀 계신 것도 밝혀서 알려주셔야 하는 데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대상으로 한 것은 실은 마귀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야(82년 3월 1일 축복일)”라고 영모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었으니 인간들이 기도하면 마귀가 응답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 속에 갇혀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은 때가 되시매 하나님의 실체를 밝히시면서 “내가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을 석방시켜 모처에 모셔냈다”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말씀을 던져주신 것이다.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이 사립인 것이다. 그러나 마귀 속에 갇혀 마귀의

중으로 있는 하나님이 그 마귀 옥을 부수고 승리하여 나오시는 분이 이긴자인 것이다. 그렇게 하여 승리하여 나오시는 분이 출현하셔야 하나님과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승리가 바로 구세주인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란다.

성경 목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김을 얻고 아버지보좌에 앉은 것같이 이기는 자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으시는 이긴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승리한 하나님이 한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세 분이 일체가 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세 분이 앉으시는 보좌는 곧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완성되시는 구세주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상제 하나님이 되시는 영모님은 두 분의 이긴자인 해와이긴자와 아담이긴자를 승리한 하나님으로 출현시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출현시키는 사명이 있으신데 결국 그 사명을 자신 있게 완수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감람 나무가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마귀는 박살나게 되어 있다(82.1.11)”라는 말씀은 분명 자신이 넘쳐나는 영모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이후부터 영모님께 서 어떤 식으로 구세주 출현을 성공시키시는지를 그 분의 발표취를 따라가면서 다음 편(제17편)에서 살펴보겠다.

영모님은 당신이 ‘천상 천하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더니 곧이어 당신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 당시로서는 앞이 캄캄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하였던 것처럼 잃어버린 두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이 영모님의 사명이었다. 그러니 마귀 속에 갇혀 있는 아담과 해와가 사망 권세를 쥔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로 출현하게 해야만 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완



삼수의 원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되는 것이다

제17편 제3신앙촌시대(제4부)

一. 完成者 救世主 出現
완성자 구세주 출현

1)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여 나오신 하나님

영모님은 당신이 ‘천상 천하에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더니 곧이어 당신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 당시로서는 앞이 캄캄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하였던 것처럼 잃어버린 두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이 영모님의 사명이었다. 그러니 마귀 속에 갇혀 있는 아담과 해와가 사망 권세를 쥔 마귀를 이기고 승리자로 출현하게 해야만 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세 분 하나님이 일체로 완

성이 되셔야 구세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삼수의 원리가 하나님 아담 해와에 해당되는 것이다. 피가 똑같은 셋밖에 없었던 것이다. 셋의 모양이 똑같이 생겨졌던 것이다. 어디도 틀린 것이 없었다. 머리카락도 같은 것이다.(82.3.8.신앙신보)” 세 분 하나님이 대해서 영모님은 이와 같이 밝히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분이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승리하신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6000년 전 아담과 해와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 마귀에게 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해와는 인간으로 되어 죽어갔던 것이다. 그 이유는 선악과는 마귀의 신인 사마의 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되어 사마의 영인 선악과가 사람들의 주체영이 되었다. 이 사마의 신인 인간의 주체영이 원죄가 되는데 이 원죄가 바로 선악과인 것이다. 이와 같이

되어서 사마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타고 앉아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마의 신인 마귀의 옥에 갇혀있다는 말이 된다. 하나님을 옥에 가두워 놓고 마귀가 마음대로 움직이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아담과 해와는 마귀의 옥문을 부수고, 마귀를 죽이고, 승리해서 출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6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일이다. 그 계획이 박태선 하나님의 출현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박태선 영모님께서 당신이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더니 곧이어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마의 신을 박살시키고 승리하여 출현하시는 해와하나님과 아담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영모님은 이분들을 찾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리고 영모님은 이분들 즉 아담과 해와의 두 하나님의 영모님이신 것이다. 이분들이 승리자이다. 특히 아담이긴자는 완성자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영모님은 지금 이와 같이 출현하시는 완성자 구세주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이 당신을 유일한 천상천하유아독존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다가 또 다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은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뜻이 된다. 그런 데도 당시 영모님을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내가 마귀 속에 갇힌 하나님을 석방시켜 모처에 모셔냈다. 그리고 마귀의 눈을 살짝 속이고 내가 그 옥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그리고 의인 하나 만드는데 피를 20번 토해야만 했다.(82.3.8 영모님)”

이와 같은 영모님의 말씀은 당신이 암마로서 해산의 수고 끝에 승리하신 하나님 구세주를 출현시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분은 영모님께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 구세주가 되시며 반대로 이기신 하나님 구세주께서는 사마의 무덤되는 나라는 의식을 깨고 승리의 부활을 하시어 출현하신 것이다. 결국 승리하신 하나님인 구세주의 출현은 영적 구세주의 암마와 승리하여 출현하신 구세주님과 마음이(은혜) 합해져 일구어낸 합작품인 것이다. 지금 영모님께서 당신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당신이 영적암마로서 해산의 수고 끝에 출현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신 구세주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을 끝도 없는 데 모셔놓고 내가 옛날 공부할 적에 초라한 모습으로 그 낯고 천한 곳에 앞드러서 하나님을 위로한다는 것을 말했었다. 그런고로 하나님과 영적 교신은 순간 순간 생각과 동시에 되는 것이다.(82.1.11)”

“나는 그토록 고생해서 하나님을 건지기 위하여 고생을 한 것이다. 출발점부터 그토록 고생해서 하나님을 모셔놓은 것이다. 지금도 처량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82.2.22).”*

다음호에 계속

격암유록 新 해설 제54회

隱秘歌(三) 은비가

精脫其右昔盤理 정탈기우석반리
落盤四乳十勝出 낙반사유십승출
先入者還心不覺 선입자환심불각
馬羊二七洪烟數 마양이칠홍연수
中入者生何時定 중입자생하시정
囊牛六畜當運時 후우육축당운시
未入者死虎兔爭 말입자사호토쟁
天下紛紛大亂世 천하분분대란세
入者動理同一理 입자동리동일리
訪道君子尋牛活 방도군자심우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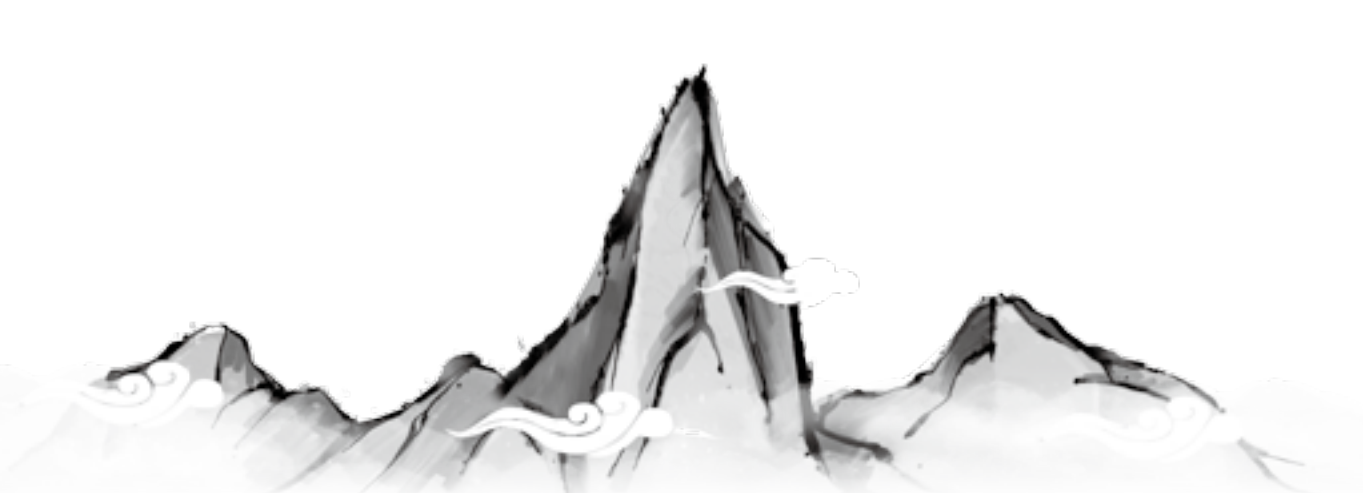
정(精)자의 오른쪽인 청(淸)자를 탈락시키면 미(米)자가 남는데 이는 옛날 소반이 되는 이치이니라. 소반의 네 젓꼭지를 떨어뜨리면 십(十)자가 된다. 여기서 십승(十勝)이 나오느니라.

선입자는 먼저 십승의 진리를 구하고자 왔지만 오히려 마음이 옛날 세상으로 돌아감에 깨닫지 못하리라. 병오(丙午) 정미(丁未)는 홍연수(洪烟數)에 정해져 있느니라. 마양이칠(馬羊二七)은 병오 정미를 의미한다.

중입자는 영생하리니 어느 때 정해지는가? 병신(丙申)에서 신축(辛丑)까지 6년의 운수로다. 말입자는 죽으리니 범(임인壬寅)과 토끼(계묘癸卯)가 다투는 구나. 천하가 크게 어지러우니 대란(大亂)의 세상이로다.

진리를 찾아 들어온 자가 움직이는 이치는 모두 한가지이니 도를 찾는 군자는 우성인(금운 6도81궁 정도령 미륵

중입(中入)의 시기에 움직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불)을 찾아야 살 수가 있느니라.

死人失衣出世 사인실의출세
先動反還不入時世 선동반환불입시세
長弓出世當時運 장궁출세당시운
中動者生道覺人 중동자생도각인
二十九日土土卜 이십구일토인복
重山急漸次出時 중산급사차출시
未入者死預定論 말입자사예정론

사인실의(死人失衣) 즉 신(申)씨(신익희)가 출세하여 대권에 도전(挑戰)하였으나 뜻을 펴지 못하고 죽은 것은 십승진리에 먼저 들어왔으나 중간에 되돌아나와서 영생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와 같으니라.

장궁(長弓) 즉 장(張)씨(장명)가 때를 얻어 집권하였는데 이는 중입의 시기에 십승의 진리를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중입(中入)의 시기에 움직인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도를 깨달은 사람이

되느니라.
이십구일토인복(二十九日土土卜) 즉 조(趙)씨(조병욱)가 늦게 대권에 도전하였으나 신병(身病)치료차 미국으로 갔지만 급서(急逝)했는데 이는 때를 놓쳐 죽는 말입의 경우와 같으며 말입자(未入者)가 죽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느니라.

先覺者末世論 선각자말세론
申西兵事起何時 신서병사기何時
八人登天役事時定 팔인등천역사시정
戌亥人多死何意 술해인다사하의
林中出聖不利時 임중출성불리시
子丑猶未定何事 자축유미정하사
金運發動混沌世 금운발동혼돈세
寅卯事可知人覺 인묘사가지인각
三災八難竝起時 삼재팔난병기시
辰巳聖人出三時 진사성인출삼시
火中稼水產出降 화중작수산출강
午未樂堂當運世 오미락당당운세
死生未初新天地 사생말초신천지

自成至羊欲知間 자술지양욕지간
一喜一悲善惡分 일희일비선악분

선각자들이 말한 말세론은 이러하니라. 신유(申酉)에 전쟁(무병접전無兵接戰)이 일어난다는데 어느 때인가? 천화(天火)가 역사하는 때로다. 팔인등천(八人登天)은 천화(天火)를 말한다.

술해인다사(戌亥人多死)는 무슨 뜻인가? 청림도사 즉 성인(聖人)인 정도령이 나왔으나 때가 이롭지 못 할 때이니라.

자축유미정(子丑猶未定; 자년과 축년에는 머뭇거리듯 아직 정해지지 않음이라)은 무슨 일인가? 금운이 발동하나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 혼돈스럽도다.

인묘사가지(寅卯事可知)이니 삼재팔난이 함께 일어나는 때로다. 인(寅)과 묘(卯)에는 천하사(天下事)가 어떻게 되어 가지를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되

며 삼재팔난(三災八難)이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진사성인(辰巳聖人) 즉 정도령의 출현에는 세 번의 때가 있느니라. 화(火)는 병정(丙丁)이니 정사(丁巳)로 첫 번째이요, 옥수(綠水)는 갑자(甲子)로 두 번째 출현하며(녹색은 갑, 수수는 자)를 의미한다.)

마지막 세 번째 진사성인 정도령이 삼위일체 완성자로서 산고(産苦)를 겪

고 감람하느니라. 오미(午未)에 집집마다 즐거움이 넘치게 되니 죽음의 세상이 끝나고 영생의 천천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니라.

술(戌)에서 양(羊=未)까지 사이의 일을 알려고 할진대 한편으론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 있을지니 선악(善惡)을 잘 분별하되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공고
다음 6월 19일은 보광절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보광하신 깊은 뜻을 기리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좋은 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승리신문사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